

스페인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성공 요인 분석 : Vox를 중심으로*

고주현(연세대)**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1. 포퓰리즘
 - 2. 극우주의
 - 3. 스페인 극우정당의 성공 제약 요인
- III. Vox의 이념적 특성
- IV. 포퓰리스트 급진우파 Vox의 선거 승리
 - 1. 2018년 12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
 - 2. 2019년 4월 총선
- V. Vox 성공 요인
- VI. 결론

<국문 초록>

2018년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급진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VOX가 투표율 11%로 12석의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2019년 4월과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VOX는 각각 24석과 52석을 확보했다. 민주화 이후 지난 40년 이상 스페인은 급진 우파 정당의 무풍지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VOX의 중앙의회 진출은 스페인의 예외주의를 종식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글

* 이 논문은 EU EACEA ERASMUS+ Jean Monnet Programme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41306).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JMCE 연구교수

은 VOX의 성공 요인과 스페인 정당체제에서 급진우파정당의 출현이 가능했던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카탈루냐 분리독립 위기로 야기된 지방자치 권한강화에 대한 우려가 VOX에 대한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 주장한다. 유럽 대부분 지역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왔고 그로 인한 친화성이 우파 정당 지지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VOX의 경우 이민 이슈와 더불어 중앙-지방균열로 인한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의 극우 포퓰리즘은 중앙-지방균열 사이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동원에 성공했다. 극우정당의 성공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토적 영역을 다루지않아 왔다는 점에서 스페인 사례는 차별성을 갖는다.

※ 주제어 : 포퓰리즘, 급진우파 정당, 스페인 극우, 복스(Vox), 포데모스 (Podemos)

I. 서론

2019년 스페인 총선을 통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중앙의회 의석을 확보했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가 이끄는 사회당(PSOE)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긴 했지만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VOX는 지난 해 정부 구성의 난항으로 두 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각각 24석과 52석을 획득하며 무서운 속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스페인에서 꽤나 이례적인 기록으로 그동안 스페인 정치가 극우 정당들의 무풍지대로 여겨져왔던 점을 주목할 때 이와 같은 예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지난 40여년 이상 극우파의 출현이 제한적이었던 스페인에서 포퓰리스트 급진우파(Populist Radical Right, PRR) 정당이 약진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2008년 재정위기 이후 세를 얻기 시작한 좌파 포퓰리즘 포데모스(Podemos)에 국한되었다. 사회적 포용(Inclusionary)을 주

창하며 좌파적 이념(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3)을 갖는 포퓰리즘으로 대변되는 포데모스는 사회경제적 약자들로부터의 대규모 지지 확보에 성공해 2015년과 2016년 총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획득했다. 반면 재정 위기 직후까지도 스페인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의회 진입에 실패했고 이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크게 성장한 주변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상황과 대조된다.

서유럽에서 급진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의 출현에 관한 연구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스페인 사례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에서는 그동안 급진우파 정당이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선거와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도 PRR 정당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세 가지 공급 측면의 요인들(국가 균열 구조, 주류 우파정당과의 경쟁과 선거제도)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방해해왔다(Alonso and Rovira Kaltwasser 2015, 21). 남유럽 전역의 재정 위기 역시 스페인에서는 극우 세력보다는 좌파 포퓰리스트 세력의 부상을 초래했다.

하지만 2018년 안달루시아 지방선거 결과는 급진우파 정당의 불모지였던 스페인의 예외주의(íbid.)를 종식시켰고 스페인 정당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이 선거에서 Vox는 11%의 득표율로 12석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진입했다. 이는 Vox가 안달루시아 자치공동체를 지난 36년간 집권해오던 사회당 좌파 정부로부터 국민당(PP) 및 시민당(Ciudadanos)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을 탈환해낸 성과로 기록되었다.

이 연구는 Vox의 성공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정당지지 동기를 분석한다. 스페인 사회조사센터(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CIS)의 선거 후 조사와 Vox의 선거 강령을 통해 Vox에 대한 주요 지지원인을 검토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유럽 국가 극우 정당들의 주요 관심 이슈는 이민과 기득권에 대한 불신, 사회경제적 분배로부터 소외된 자들로부터의 불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ord and Goodwin, 2012; Mudde, 2007).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스페인에서 PRR의 출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동안 스페인에서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으로 지목되어온 중앙-지방 균열이 지난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했는 지, Vox의 지지율 상승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스페인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할 수 있었던 원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좌파 포퓰리즘 현상과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두 가지 경쟁적 형태의 포퓰리즘이 출현한 유럽의 드문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포퓰리즘과 극우정당의 개념과 성공 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들과 스페인에서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으로 제시되어왔던 논의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Vox를 포퓰리스트 급진우파정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Vox의 약진을 보여주는 선거결과를 제시한다. 5장에서는 극우 정당의 부상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유권자 선택과 관련한 이슈들(이민, 기득권에 대한 신뢰)과 정치기획구조(정당 간 경쟁) 요인이 Vox의 지지율 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스페인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으로 제시된 중앙-지방 간 균열이 Vox 선거승리에 미친 요인을 추적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그동안 여러 국내의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시도해 왔다. 다양한 변종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은 정치적 갈등구조를 “대중과 엘리트의 적대관계”로 파악하고 대중의 직접적인 권력 행사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포퓰리즘의 또 다른 특징은 여타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연성 이데올로기(thin ideology)라는 것이다(Mudde 2004). 하지만 엘리트와 대중을 이분화하는 동시에 자기 완결성이 부족한 연성 이데올로기이다 보니 대중을 어떤 집단으로 구체화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즉, 외부로부터 차용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에 따라 포퓰리즘은 극좌와 극우의 형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이 인종주의나 순혈주의를 기초로 대상화될 때 포퓰리즘은 극우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정병기(2020) 역시 포퓰리즘에 관한 뮈데와 로비라 칼트바체의 최소 정의의 유

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의 ‘상대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어떤 포퓰리즘에서는 인민의 의사가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보다 전체의지(volonté de tous)에 더 가깝다”고 본다. 한편 카노반(Canovan 2002)과 같이 포퓰리즘을 약한 이데올로기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포퓰리즘의 속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대한 이해는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현상들의 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포퓰리즘의 개별적 속성들(인민에 대한 호소와 반엘리트주의, 현실 타파, 선동 정치, 카리스마적 리더십 등)이 개념 정의에 더해진 현상들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포퓰리즘을 역사적으로 구분한다. 19세기 말의 고전적 포퓰리즘과 20세기 이후 등장한 현대 포퓰리즘을 구분하며 현대 포퓰리즘은 다시 구포퓰리즘, 신포퓰리즘과 포스트포퓰리즘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의 대상인 2000년대 후반에 발생한 스페인의 포퓰리즘 정당은 정당의 과잉 발전으로 대의 정치가 왜곡된 환경에서 발생한 포스트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포스트포퓰리즘 정당이 다른 현대 포퓰리즘 정당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집단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수용에 있다. 하지만 포스트포퓰리즘 정당들도 기존 포퓰리즘 정당들처럼 엘리트와 인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관점을 유지한다.

김현준과 서정민(2017)은 포퓰리즘을 정치 양식으로 파악한다. 포퓰리즘의 중심 가치 부재를 지적한 뮈테와 태거트(Mudde 2010, 1175; Taggart 2004, 274-275)의 논의를 토대로 그동안 포퓰리즘에 관한 정의들이 행태적/이념적 개념에 제한되어있던 점을 지적한다. 정치 과정에서 동원의 주체인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동원의 대상인 대중이 포퓰리즘적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선형적 존재가 아님을 강조한다.

즉 포퓰리즘을 정치적 엘리트와 대중이 정치적 공동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파악하고 호명을 통해 정치적 동원의 대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주체는 그들의 지지로 정당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으로 본다.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국면에 등장하는 포퓰리즘의 맥락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접근은 유용해 보인다.

배병인(2019, 77-78)은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을 카르텔 정당의 진화에 따른 대의민주주의 질서의 위기라고 본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 현상을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이자 결과로 이해한다. 그는 포퓰리즘이 대중적 설득력을 얻는 원인에 주목하며 무엇보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중

과 괴리된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적 과두제로 변모했고(Mounk 2018), 정당이 기존의 이익대표기능을 상실하고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과 담합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에서(Katz and Mair 1995, 2018; Mair 2002)포폴리즘이 출현한 것이라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분법적 집단 구분과 어떤 다른 이념과도 결합할 수 있는 연성이념이라는 점은 뮈테가 제시한 최소 정의에서처럼 포폴리즘의 기존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요소이다.

<표 1> 포폴리즘 기존 논의와 개념 분류

Mudde and Kaltwasser (2004)	정병기 (2020)	김현준, 서정민 (2017)	배병인 (2019)
부패한 엘리트 VS 순수한 인민 연성 이데올로기	인민 vs 엘리트 적대구도 연성 이데올로기 + 현실 타파 선동 정치 권위주의	정치 엘리트와 대중이 정치 공동체를 특정 방식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	카르텔 정당의 진화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 질서의 위기
	고전적 포폴리즘		
	현대 포폴리즘		
	구포폴리즘	신포폴리즘	포스트 포폴리즘

자료 : Mudde and Rovira Kaltwasser(2004), 정병기(2020), 김현준, 서정민(2017),
배병인(2019)를 토대로 저자 정리

한편 포폴리즘 정당의 부상 요인에 대한 연구 역시 그동안 다수 진행되어 왔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포폴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선호에 관한 것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수요 측면의 논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초점을 맞춘 공급 측면의 논의로 선거와 정당 체제 등 제도적 문제에 관한 것이다.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공간에서 기성 정당들이 중도의 입장으로 수렴될 때, 그리고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일 때 포폴리즘 정당에 대한 유권자 선호가 보다 크게 표출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기성 정당들이 중도 입장으로 수렴됨에 따라 이로부터 소외된 좌-우 양 극단의 유권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포폴리즘 정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Abedi 2002; Norris 2005). 그러나 수요나 공급 측면의 논의들은 각각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적 비일관성은 포폴리즘이 연성 이데올로기로 자기 완결성 확보를 위

해 상호 모순적인 이데올로기들을 동시에 표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페인의 극우 정당 부상 요인은 정치적 기회구조와 같은 공급측면의 논의나 혹은 유권자의 속성과 같은 수요 측면의 논의를 넘어 이를 가능하게 한 일종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전과 장기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한 역사로 인해 형성된 스페인의 정치문화는 극우정당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초기에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투표하고 그 정당이 정치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치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해당 국가의 맥락에 따라 똑같은 정치 구호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상이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제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2. 극우주의

극우주의는 우파 이념(자유민주주의 혹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을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이념을 의미한다. 각 국의 정치현실에서 극우주의는 다양한 관점과 상이한 내용이 혼재된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날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극우정당은 이주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반이민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정서를 도구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개념의 극우정당이 아닌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들도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선동하는 극우적 성향을 내포한 정당 대열에 합류한다. 이들은 실업문제나 경제적 불평등, 공공안전 등 현대 유럽사회의 주된 문제들의 원인으로 이민문제를 지목하고 반이민 정책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주요한 가치관은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우리’가 아닌 외국인들을 배제하려는 민족주의적인 정서이다. 이처럼 현대유럽 극우정당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개념들에는 민족주의, 복지국수주의, 인종주의 등이 포함된다(Mudde 2007, 179). <표 2>는 극우의 이념과 각 이념이 포괄하는 속성을 보여준다. 표의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보다 극단적인 이념이다. 예컨대 극단적 우파는 반 민주주의, 권위주의, 인종주의적 속성 모

두를 포괄하지만 급진적 우파와 토착주의, 민족주의의 경우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표 2> Mudde의 분류에 따른 극우의 이념과 속성

이념	특징
극단적 우파	반 민주주의
급진적 우파	권위주의
토착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자료 : Mudde 2007, 24.

이는 김현준과 서정민(2015)의 연구를 통해서도 일부 설명되어진다. 그들은 중동부 유럽 국가의 극우주의 등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베츠와 존슨(Betz and Johnson 2004, 312-313)과 이규영과 김정미(2012, 47-48)의 논지를 들어 극단주의와 급진주의의 핵심적인 차이를 인민주권에 기초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인정 여부라고 규정한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민주적 헌법질서와 법치를 준수하기에 합헌의 영역에 속하지만 극단주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극우주의를 모두 극단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를 지극히 병리적으로 치부한다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대중적 극우주의’의 경우 정치적 게임의 법칙 안에서 민주적 수사를 구사(Minkenberg 2002, 340; 김현준, 서정민 2015, 8)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정치적으로 극우주의는 개인에 대해 공동체 중심,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중심의 성격을 지녔다. 특히 “일원적으로 통합된 전통 공동체를 선호하며 사회문화적인 개인의 선택까지도 공동체적 규범에 복속시킨다. 또한 과거에 기반을 둔 종족적 민족주의를 근거로 사회적 동일성을 극대화 한다(Minkenberg 2002, 339; 김현준, 서정민 2015, 9 재인용).”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배타주의적 성향을 갖는 반이민자 정책, 반다문화주의 또는 제노포비아와 같은 현상들이 초래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에 유리하게 대비하여 적응할 수 있는 물리적, 문화적 자본을 가진 소수를 엘리트로 규정하고 그러한 적응에 실패한 자들을 일반 대중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포퓰리즘이 국민 국가의 해체와 그 경계의 약화 현상으로부터 형성되고 강화되어 세계화 국면에서 문화와 노동시장 갈등을 이용해 민족과

인민을 동일시하고 이에 대한 동원을 통해 극우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될 경우 극우 포퓰리즘이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이민자와 소수 집단을 포함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종족적 관점을 취하는 것과 부패한 엘리트가 이민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한다고 주장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3. 스페인 극우정당의 성공 제약 요인

극우정당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실업률 상승과 극우정당 지지율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Mudde 2007, 206)와 이민율과 실업 문제,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에 따른 극우정당 투표율을 분석한 논문들(Golder 2016)이 있다. 즉 이민인구가 많을 때 실업문제는 극우정당에 대한 투표를 증가시키지만 이민 인구가 적을 때 실업 문제는 극우정당에 대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경제 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민자와 실업률의 증가가 극우정당 지지율의 상승을 초래하지만 복지국가에서는 이주민 증가로 인한 영향력은 나타나지만 실업률의 영향력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알롱소와 로비라 칼트바셰(Alonso and Rovira Kaltwasser 2015, 21-22)는 현대 스페인에서 포퓰리즘 극우정당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공급 측면의 요인들(균열 구조, 주류우파와의 경쟁과 선거제도)이 극우포퓰리스트 정당의 출현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고상두, 기주옥(2013, 200-201)은 사회경제적 조건인 이민자 비율과 실업률,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비례대표 실시 등의 요인은 스페인에서 극우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설명력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반감, 강한 지역주의라는 정치문화적 요인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주의는 극우정당의 성공에 핵심적인 이념적 바탕이 되지만 지역주의적 신념체계가 강한 스페인의 정치문화가 중앙집권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의 성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기실 극우주의나 포퓰리즘이 중앙집중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특이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주의가 강한 스페인에서 중앙집중주의적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전국 정당으로 성장한 데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바로 그 지역주의 때문에 그동안 스페인에서 극우가 억제되었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라 어떻게 지역주의가 여전히 강세인 국가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중앙집중주의가 통할 수 있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 선거 공간에서 의석 확보에 성공한 정당에 한정해 포퓰리스트적 극우정당의 성공요인을 검토한다. 스페인의 현대정치에서 극우주의적 성향의 정치세력은 그동안 선거 공간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2018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Vox는 제도권 밖에서 정치적 환경변화를 고대하면서 잠복해있던 극우주의 세력의 포퓰리즘적 동원을 통한 전략적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계기 역시 존재하며 이에 관한 맥락적 분석이 필요하다.

III. Vox의 이념적 특성

먼저 Vox가 포퓰리스트 급진우익(PRR) 정당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 카스 뮈데(Cas Mudde 2011, 12)는 PRR을 ‘토착주의,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혼합’이라 정의한다. 토착주의는 민족주의와 제노포비아의 요소들을 특징으로 갖는다. 따라서 이는 두 개 집단, 즉 국가 공동체에 소속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자를 구분하고 민족 외부의 사람들을 민족 내부 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한편 권위주의는 엄격한 질서 사회를 최우위 가치로 삼고 권위에 대한 위반은 철저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한다. 또한 포퓰리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성 이데올로기이자 사회를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두 개의 그룹,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구분해 서로를 대척점에 세운다. 나아가 정치가 인민의 ‘일반 혹은 전체의 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Vox는 2013년 12월 국민당(PP: Partido Popular)의 일원이었던 산티아고 아바스칼(Santiago Abascal)에 의해 창당되었다. 아바스칼은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가 이끄는 국민당이 그동안 전통적 가치, 국가통합, 경제적 자유 등의 이슈에서 지나치게 온건화 된 것에 불만을 품고 Vox를 창당했다. 그 출발점은 낙태와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스페인 페미니즘 운동의 최근 성

장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이주민, 이슬람과 다문화에 반대하는 등 전통적인 극우주의적 요소를 주요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Vox는 뒤데의 PRR 정의에 부합한다. Vox는 또한 권위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에 강한 기반을 둔 정치 이념을 갖는 정당이다. 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옹호하고 지역의 자치권한 축소를 주창한다. Vox를 신파시스트 정당으로 보는 소수의 학자들이 있지만 (Franquesa 2019, 545) 민주주의적 법적 질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Vox는 현대 포퓰리스트 급진우파정당에 더 가깝다(Dennison and Mendes 2019, 1). 턴불 듀가르트(Turnbull-Dugarte 2019, 2)는 Vox가 민족주의, 권위주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속성(Ferreira, 92)과 더불어 특히 스페인의 과거 영광에 대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에서 포퓰리스트적 접근을 찾을 수 있으며 PRR 정당에 해당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스페인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포퓰리스트적 호소를 보이는 것은 포퓰리스트 급진우파정당에 걸맞는 민족주의적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 Vox와 이념적 유사성을 갖는 프랑스의 Front National, 독일의 AFD, 영국의 UKIP과 다수의 유럽 극우정당들처럼 Vox는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추방과 이민자 유입에 호의적인 사회정책의 폐지를 주장한다(Vox, 2018). 주목해야할 점은 이민에 대한 강경 노선은 그동안 스페인의 여타 정당들의 담론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보이지 못했던 이슈(Encarnación, 2004)로 Vox의 반이민 강조는 스페인 맥락에서 예외적(Morales et al., 2015)이다. 한편 카탈로니아 문제에 있어서 Vox는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와 스페인 민족주의적 요소를 모두 표방한다. 무엇보다 분리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항해 카탈로니아 지역의 자치 중지를 요구하고(Vox Manifesto) 분리독립의 목적을 갖는 정당에 대한 위헌을 주장했다. 이러한 목표들은 Vox의 극단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고 다른 우파 정당들과의 정치적 거리를 보여준다.

<표 3> Vox의 이념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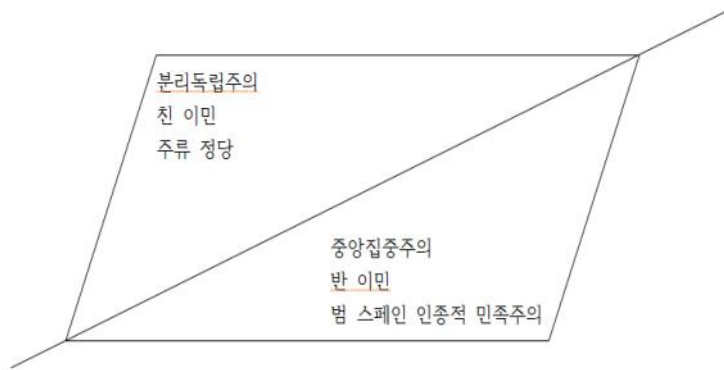
특성	Vox	
민족주의	O	- 범 스페인 국경을 스페인 민족의 범위와 연계, 문화적 동질화 강조 - 카탈로니아, 바스크 등 소수의 대안적 민족 프로젝트 억제
토착주의	O	- 국가의 일부인 사람들만 거주하는 국가의 내부적 동질화 과정 추구 - 이민에 대한 강경책 - 이슬람 근본주의와의 투쟁
권위주의	O	- 법과 질서 강조 - 헌법 가치와 정의 훼손 비판
포퓰리즘	O	- 주류 정당의 부패, 대중의 삶 피해 - 공공 기관과 관료의 정직성, 국가 효율성 - 분리독립 세력을 국가 통합을 훼손하는 '내부의 적'으로 상징 - 분리독립 세력에 동조하는 주류 정당 역시 적
전통적 가치	O	- 전통 가치 수호 - 스페인의 단일 문화, 언어 강조
반 민주주의	X	- 대의 민주주의 수용 - 선거 제도 개편 요구(폐쇄명부, 할당제 등)

자료 : Vox Manifesto(2019) 토대로 저자 정리

이처럼 Vox의 극우적 성격은 이민자에 대한 적대와 민족주의적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대가 포퓰리즘의 가장 기초적 정의인 엘리트와 인민 사이의 적대로 코드화되어 지지를 이끌어내는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Vox가 PRR로 분류되는 근거 중 하나는 그들의 매니페스토에 나타난 이민자에 대한 적대와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로 이 글의 5장에서 볼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스페인 일반 대중의 이민자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통계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Vox의 사례에서 인민과 엘리트 사이의 적대라는 포퓰리즘의 정의에 부합하게 상징화되는 지에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Vox가 적대시하는 분리독립세력(지역주의 정당 뿐 아니라 이들과 결탁하는 주류 정당 포함)과 이민자에 친화적인 세력을 부패한 엘리트의 영역으로 보고 중앙집중주의와 스페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Vox를 위시한 그 외 세력을 순수한 인민의 구도로 파악한다. <그림 1>은 포퓰리즘의 최소 정의인 엘리트 대 인민 구도로 Vox의 이분 구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림 1> 포퓰리즘 최소 정의인 엘리트 VS 인민 구도에 따른 Vox의 이분 구도



자료: 저자 작성

IV. 포퓰리스트 급진우파 Vox의 선거 승리

이 장에서 살펴 볼 2018년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와 2019년 총선이 갖는 의미는 스페인에서 급진우파 정치세력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지역과 전국 차원에서 의석을 확보한 데 있다.

1. 2018년 12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

2018년 12월 2일 치러진 안달루시아 지방선거는 수자나 디아스(Susanna Díaz) 자치수반의 조기 선거 발표로 이루어졌다. 디아스의 이와 같은 시도는 당시 국민당 소속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사회당 당수인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가 신임 총리로 임명된 직후라 안달루시아에서도 조기 선거를 통해 사회당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됐다(Martin-Arroyo, 2018).

선거는 국가적 갈등 상황 속에 치러졌다.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유주의적

좌파와 보수우파 간의 전통적인 정당 갈등과 함께 스페인의 정치경쟁은 지방분권을 둘러싼 중앙-지방 갈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2017년 10월 1일, 분리독립 연정이 이끄는 카탈로니아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지역의 독립 여부에 관해 자체 투표를 진행했고 10월 27일 일방적 독립을 선언했다. 라호이가 이끄는 중앙 정부는 독립운동을 저지했고 스페인 헌법 155조를 발동, 카탈로니아 주정부의 자치권한을 중지시키고 차기 선거 시까지 중앙으로부터의 직접 통제를 실시했다.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2020년 현재까지도 큰 개선을 이루지 못했고 카탈로니아의 전 자치수반인 카를레스 푸지데몬(Carles Puigdemont)은 브뤼셀에 망명 중이다. 또한 그의 동료들 역시 스페인 대법원에 의해 국가 반역죄를 이유로 재판 중에 있다. 현재 분리주의 연합은 카탈로니아에서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카탈로니아 독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지역을 넘어 전국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Sánchez-Cuenca, 2018).

안달루시아 지방선거는 카탈로니아 문제로 인한 국내 갈등에 더해 2018년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된 이민자 수가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초과하자 스페인이 유럽 이민 위기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다(Keeley, 2018). 산체스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가 평소 이민자와의 유대를 강조해왔음에도 이탈리아 정부의 아쿠아리우스 선으로부터의 이민자 수용 거부 이후 이에 대한 수용 입장은 스페인 내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Sanmartín, 2018). Vox의 정치적 성공에도 카탈로니아 이슈와 이민 문제에 대한 정당의 유권자 동원 능력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Jaboís, 2018; Llaneras et al., 2018).

한편 사회당의 경우 2015년 대비 14석을 잃으며 당시까지 선거 결과 중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다. 포데모스의 지역 정당인 전진 안달루시아(Adelante Andalucía, AA)도 득표율이 6% 하락했다. 결국 지역의 좌파 블록인 사회당과 AA는 17석을 우파 연합에 내주었다. 비록 국민당 역시 득표율과 의석수가 지난 지역 선거와 비교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당(Ciudadanos, Cs)과 Vox의 약진으로 주류 우파 정당들은 안달루시아 유권자들이 지역의 좌파 기반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한 것이라 주장한다.

<표 4> 2015, 2018년 안달루시아 지방선거 결과

	% 득표율 (의석)		증감율
	2015	2018	
사회노동당(PSOE)	35.43 (47)	27.95 (33)	-7.48 (-14)
국민당(PP)	26.76 (33)	20.75 (26)	-6.01 (-7)
시민당(Cs)	9.28 (9)	18.27 (21)	+8.99 (12)
전진 안달루시아(AA)	21.73 (20)	16.18 (17)	-5.55 (-3)
복스(Vox)	0.45 (0)	10.97 (12)	+10.52 (12)

자료 : www.parlamentodeandalucia.es (검색일: 2020. 4. 15)

주류 우파 정당의 승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들은 Vox의 첫 의석 확보와 급진우파정당에 대한 정치적 호소가 지역에서 설득력을 얻은 것이라고 평했다. 결국 국민당과 시민당의 연립을 통한 우파 블록의 지방 정부 탈환은 Vox의 지원으로 가능했고 이는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지난 36년간 사회당 주도 정부의 종식을 가져왔다.

2. 2019년 4월 총선

2019년 4월 총선은 경제적 대침체 이후 주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도전자인 포퓰리스트 급진우파정당에 의해 약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2019년 4월 선거에서 가장 큰 승자는 사회당이었지만 그럼에도 처음 중앙의회 의석을 차지한 Vox가 더 주목받았다.

포퓰리즘은 스페인 정치에서 새로운 분열적 현상이다. 스페인에서 포퓰리즘 현상은 포데모스라는 배너 하에 좌파적이고 포용적인(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3) 형태로 출현해 2015년과 2016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또 다른 신생 정당인 시민당은 포퓰리스트로 분류되진 않지만 중도 우파 정당으로 국내 정치의 재편을 요구하며 세를 확대해나갔다.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상처를 입은 국민당은 2018년 의회의 불신임안 통과로 인해 사회당에 정권을 내주었다(Margulies 2018). 2019년 총선의 결과는 파블로 카사도(Pablo Casado)로 당수가 교체된 국민당이 더 이상 중도 우파의 지배 정당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 5>를 통해 국민당이 정치 스펙트럼의 우측에서 증가하는 경쟁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

당과 포데모스가 입지하고 있는 중도 좌파와의 경쟁에선 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2019년 총선 결과

	득표율		의석 (괄호 안은 의석 %)	
	%	2016년과 차이(%)	점유 의석	2016년과 차이(%)
사회당(PSOE)	28.7	+6.1	123 (35.1)	+38 (+10.8)
Unidos-Podemos	14.3	-6.8	42 (12)	-29 (-8.2)
중도좌파/좌파	43	-0.7	165 (47.1)	+7 (+2.6)
국민당(PP)	16.7	-13.3	66 (18.8)	-71 (-20.3)
시민당(Cs)	15.9	+2.8	57 (16.3)	+25 (+7.1)
Vox	10.3	+10.2	24 (6.8)	+24 (+6.8)
중도우파/ 우파	42.9	-0.3	147 (42)	-22 (-6.4)
기타(지역주의, 친독립주의 정당)	14.1	+1	38 (10.9)	+15 (+4.3)

자료 : 스페인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España (<https://www.generales2019.infoelecciones.es/>)

2020년 4월 22일 검색)

다음 장에서는 스페인에서 출현한 포퓰리스트 극우 정당의 특성을 그 성공을 가능하게 한 맥락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추적하겠다. 스페인 사례는 다층정치체제에서 포퓰리즘의 경쟁적 형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V. Vox의 성공 요인

1. 이민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우파 포퓰리즘을 좌파 포퓰리즘과 구분하는 핵심 요인은 좌파의 경우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파는 사회문화적 이슈들에 집중한다고 본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분류 하에서 좌파 포퓰리즘은 사회 경제적으로 포용적인 경향을 띠는 (빈곤층 포용) 반면, 우파 포퓰리즘은 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배제) 배타적이다.

양가적 형태의 포퓰리즘은 세계화에 대한 반발과 특히 2008년 시작된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의 후폭풍으로 초래되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이슈들 간의 구별을 고려하면 이들은 현상의 다른 측면들을 보다 부각한다. 이는 샤츠슈나이더가 언급했듯이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갈등은 동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적 갈등은 억압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정당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정당체제 형성에 있어서의 동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샤츠슈나이더 2008). 즉 특정 정당이 자당에 유리한 특정 균열을 의도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로드릭(Rodrik 2018)이 강조했듯이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세계화를 문화적 영역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민의 영향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대한 외부적 위협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좌파 포퓰리스트들은 주로 재정과 무역 통합의 형태로 야기된 보다 경제적인 영역에 집중한다. 이는 크리시 외(Kriesi et al. 2006, 928)가 언급했듯이 “국경 개방에 대해 급진 좌파가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화에 대한 저항이자 국가 수준에서 좌파가 성취한 것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반면 “포퓰리스트 우파의 경우 국경 개방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경쟁과 위협으로 사회문화적 형태의 저항”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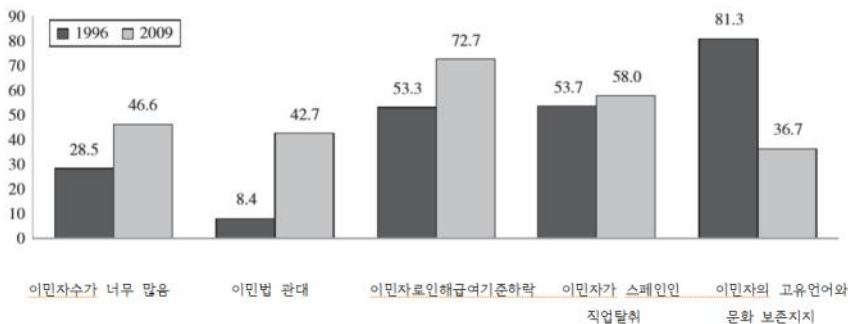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이민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회문화적 이슈들을 통한 정치적 동원력이 보다 증가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이민과 우파 포퓰리즘 간의 상관성에 관해 증명한 바 있다(Knigge 1998; Lubbers and Sheepers 2002; Halla, Wagner, and Zweimüller 2017).

최근 테니슨과 멘데스는 Vox를 반이민 정당으로 분류하고 스페인 정치 지형에서 이민에 대한 이슈 선명성의 증가가 Vox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Dennison and Mendes 2019) 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이는 Vox가 범죄자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극각적 추방과 이민자 통합에 친화적인 사회정책의 폐지를 강조하는 등 선거 기간 동안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Turnbull-Dugarte 2019, 3; Vox Manifesto 2019, 5-6). 주목해야할 점은 그동안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식민지로부터 이주한 이민 비율이 전통적으로 높았던 국가였기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적대 정서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

해 크지 않았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와 대공황으로 인해 불법이민은 오히려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알롱소와 로비라 칼트바셰에 의하면 <그림 2>가 보여주듯이 스페인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lonso and Kaltwasser 2015, 30). 또한 CIS의 2013년 조사에서도 당시 스페인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던 이슈는 실업률 증가(전체 응답자의 82%가 선택)였지만 이민 이슈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림 2> 스페인에서 이민자에 대한 태도



자료 : CIS 조사 #2,214(1996), #2,817(2009); Alonso and Rovira Kaltwasser(2015, 30)

또한 2018년 안달루시아 지역을 통해 스페인으로 유입된 모로코인의 불법 입국자 수는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표 6). 이는 지역의 실업 문제와 함께 이민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반이민에 대한 프레이밍에 성공한 Vox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6> 서지중해를 통해 스페인으로 불법 입국한 모로코인 수 (단위, 명)

2009-201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54	300	776	365	282	468	631	722	4,704	7,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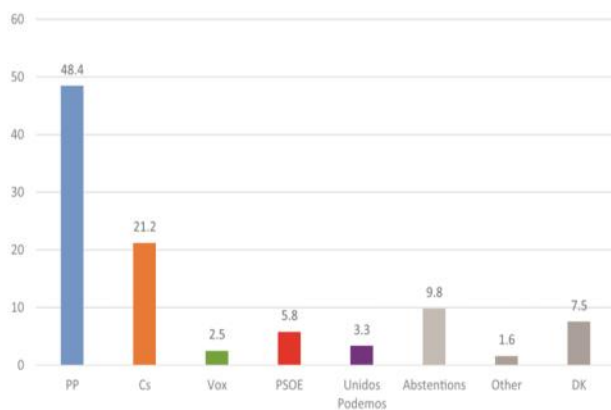
자료 : Chislett(2018, 2), *2018년의 경우 9월까지의 수

2. 정치기회구조

공급 측면의 논의들은 선거제도와 기성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분포 등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을 용이하게 하는 정치적 기회 구조의 차이에 주목해왔다. 이들은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공간에서 기성 정당들이 중도의 입장으로 수렴될 때, 그리고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일 때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본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경우 단순 다수제와 달리 소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고, 기성 정당들이 중도 입장으로 수렴됨에 따라 이로부터 소외된 좌-우 양 극단의 유권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8년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Vox 투표자 중 절대 다수는 이념적으로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나왔다. 그 중 과반 정도는 국민당 지지자들로부터 20%는 시민당으로부터 왔다. 반면 좌파 지지자들로부터 얻은 득표율은 10% 미만이었다.

<그림 3> 2018년 Vox 지지자가 2016년 투표했던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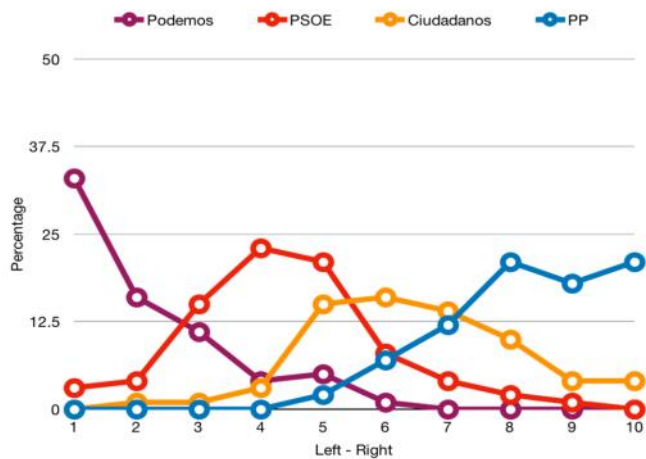


자료 : CIS 조사 #3,236; Turnbull-Dugarte(2019, 3)

특히 시민당의 출현으로 국민당은 지지기반을 크게 상실했다. <그림 4>가 보여주듯이 스페인인들은 1에서(좌) 10까지(우) 정치이념스펙트럼 상 국민당의 이념성

을 7-10 사이로 기존 정당 중 가장 우파적인 이념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우파적 성향의 신생 정당인 시민당과의 경쟁으로 국민당의 정책 이념성은 점차 중심을 향해 수렴해갔다. 이는 Downsian 모델이 설명하듯이 중위 유권자 포섭을 위한 정당 간 경쟁에 기인한다. 보수성의 우측 척도가 흐려짐에 따른 새로운 극우적 성향의 정당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당의 연이은 부패 스캔들과 이로 인한 불신임안 가결 및 총리 교체는 국민당의 신뢰도를 한층 더 하락시켰다. 보쉬와 두란은 2008년까지 국민당과 사회당 기반의 양당체제였던 스페인에서 시민당과 포데모스 같은 신생정당이 표를 얻게 된 원인을 국가 경제의 악화와 부패한 기성 정당이라는 인식이 상호작용한 결과(Bosch and Durán 2017, 1)라고 본다. 즉 정치 이념 스펙트럼 상 정당의 위치 변화가 Vox 부상의 촉매로 작용했다.

<그림 4> 이념 스펙트럼 상 스페인 정당의 위치



자료 : CIS 2015

3. 중앙-지방 균열

PRR 출현에 관한 기존 이론들은 포퓰리즘의 출현과 영토적 동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못해왔다. 영토적 동원은 다시 말해 립셋과 로

칸(Lipset and Rokkan 1967)이 제시한 중앙-지방 균열과 연관된다. 중앙-지방 균열은 스페인의 특징적인 정치 균열이었고(고주현 2018a, 2018b) 이는 그동안 극우정당의 출현이 제한적이었던 주 요인으로 지목되어왔다. 그런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지역균열에 의해 극우정당이 출현가능했다.

립셋과 로칸은 중앙-지방 균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배적인 엘리트와 관료들로부터의 개입에 대한 지역적 저항: 문화적으로 중앙집중화, 표준화와 민족국가를 합리화 기제화하려는 압력과 이로부터 위협받는 주변지역의 언어적 문화적 소수”와의 갈등(Lipset and Rokkan 1967, 14)

스페인의 경우 두 개의 주요 포퓰리스트 정당인 포데모스와 Vox가 전 스페인 영토에 걸쳐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전국 정당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층 거버넌스의 특징을 갖는 정치체제 내에서 경쟁해야하고 지역중심의 민족주의 정서를 갖는 정당들의 영토적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Subirats 2006; Wilson 2012). 스페인처럼 지역주의 정서가 강한 국가에서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전국 정당으로 성장했을 때 각 지역이 요구하는 민족주의적이고 영토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양상에 대한 설명은 선거 경쟁에서 정당의 승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Vampa 2020, 2).

알롱소와 로비라 칼트바쎄(2015, 40)에 따르면 주변부 지역과 국가 민족주의 간의 격화된 갈등으로 특징지어진 균열구조는 스페인에서 PRR 정당의 출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 다수의 ‘민족주의적 주변’의 정체성이 혼합되어있는 정치 환경에서 PRR 정당이 민족주의 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국민당이 국가중심적 입장을 확실히 점유해왔기 때문에 이는 정치 이념 스펙트럼 상 우측에서 중앙집중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력의 출현 여지를 좁혔다. 다시 말해 스페인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PRR이 전국 차원의 정당으로 출현해 성장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그 조건은 지역주의적 민족주의가 존재하고 다수의 강한 지역주의 정체성으로 인해 반이민 또는 배제의 메시지가 선거 동원을 위한 프레임 전략으로 채택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그들이 중앙집중 경향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강한 중도우파 정당과 경쟁할 때 PRR의 출현은 제한된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보면 카탈로니아 사태 혹은 ‘영토적 위기’(Dowling 2017)로

야기된 중앙-지방 균열의 급진화는 스페인에서 PRR 정당의 성공 기회를 더 감소시켰어야 한다. 실제로 전국 단위의 PRR 정당은 증가하는 영토적 긴장 속에서 이민 정서를 갖거나 포퓰리스트적 사고를 갖지만 카탈로니아의 경우처럼 특정 민족 공동체에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Alonso and Rovira Kaltwasser 2015, 28).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정 지역의 자치 또는 다른 지역들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강한 요구가 동일 국가 내의 타지역들로부터 급진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고 중앙집중화에 대한 요구를 점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다시 민족주의 세력들에 의해 이민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통합을 훼손한다는 명분으로 ‘내부의 적’(Mudde 2007, 69-70)으로 만들어져 이용되어질 수 있다. 2018년 말 카탈로니아 위기는 지리적 정치적으로 거리가 먼 안달루시아 선거 지형을 바꾸는 핵심 역할을 했다. 텀벌 듀가르트(2019)는 카탈로니아 분리독립 위기로 야기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우려가 2018년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우파 도전자로 나선 Vox에 대한 유권자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당시 전국 단위의 주류 정당들이 분리독립 사태에 대한 위기 관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알롱소와 로비라 칼트바세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위정부의 지역 기반 영토적 동원과 중심-지방 균열의 중심에 위치한 강한 주류 정당이 동시에 수반되어질 때 전국 단위에서 PRR은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부패 스캔들로 약화된 국민당의 위상이 Vox에게는 기회의 창을 연 셈이 된 것이다.

실제로 영토 이슈는 Vox의 선거 캠페인에서 이민이나 경제 이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Vox는 ‘국가 중심의 종족적 민족주의’의(Calzada 2018, 345) 대변인이자 마드리드 중앙권력으로서의 집중을 호소하는 수호자로 여겨졌다.

2019년 총선에서 Vox가 내세운 선거강령의 첫 번째 장이 ‘스페인의 통합과 주권(España, Unidad y Soberanía)’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을 고려할 때 선거 캠페인에서 정당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국가 통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명확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의 또 다른 강조점인 이민 문제는 강령의 세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다. 경제에 관해서는 안보와 법치, 질서에 이어 5번째 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Vox 선거강령의 첫 번째 장의 첫 절은 카탈로니아의 자치 중지에 관한

요구이다. 국가 통합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당의 해산과 함께 스페인 국가의 상징과 언어의 보호, 지방 경찰제도의 중지, 스페인을 단일 정부와 단일 의회를 갖는 단일 국가체제로 전환하고 교육, 보건, 치안 및 사법과 같은 자치 지역의 고유 권한들을 중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Vox Manifesto 2019, 1-2). 국민당과 시민당을 포함해 분리독립을 반대하는 스페인 내 다른 어떤 정당들도 중앙-지방 관계에 있어 이 보다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한 곳은 없었다. 또한 2019년 총선에서 Vox는 영토적 정치적 지역주의와 독립지향적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한 지역에서 더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스페인의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포데모스의 경우에는 영토 이슈에 있어서 다른 접근을 취했다. 포데모스는 유로존 위기 이후 긴축에 관한 정치적 논쟁과 저항의 과정에서 출현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영토성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카탈로니아가 처음 독립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2014년 이었다. 2015년 총선이 있기 두 달 앞서 독립 지향 정당들은 카탈로니아 지방 선거에서 승리했다. 포데모스에게 있어 이는 선거 승리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결국 그들은 영토 동원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비달과 산체스 비토레스(Vidal & Sánchez-Vitores 2019, 87-90)는 지방권한 확대를 포함한 정치적 이슈들이 2015년 선거 캠페인에서 경제 이슈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포데모스는 지역권한 확대를 강력 지지하는 유일한 전국 단위 정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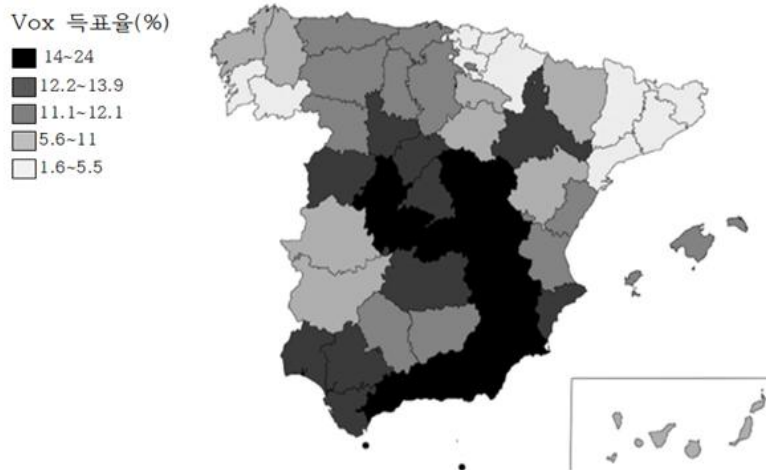
포데모스는 선거 강령(Podemos Manifesto 2015, 188)을 통해 자치 정부의 권리와 자치 시민의 자결권(derecho de decidir) 및 스페인 국가의 다민족성(naturaleza plurinacional de España)에 대한 인정을 명확히 했다. 포데모스는 카탈로니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복수성을 인정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이었다(Payero López 2015, 245). 포데모스에 관한 연구들은 다민족성과 친 지역자치적 프로파일이 정당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에 대체로 합의한다(Ivaldi, Lanzzone and Woods 2017, 368). 그들은 심지어 지역주의 운동(예컨대 카탈로니아 지역의 En Comú Podem, 갈리시아 지역의 En Marea와 발렌시아 지역의 Podemos-És el Moment)과의 연대를 통해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2015년 총선 결과를 통해 포데모스가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카탈로니아, 갈리시아와 발렌시아 지역에

서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Rodríguez-Teruel, Barrio, and Barberà 2016).

일반적으로 포데모스로 대표되는 좌파 포퓰리즘은 중앙화의 성격이 우파 정당과 비교해 낮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분리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지역 자치 확대 요구를 명확히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선택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포데모스는 지역주의와 친 독립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한 영토적 정치 동원이 강한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한편 영토적 요인의 중요성은 다음의 두 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2019년 스페인 52개 주에서 Vox의 선거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6>은 포데모스가 처음 총선에서 성공했던 2015년의 결과를 보여준다. Vox는 카스티야 지역과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세우타와 멜리야 제도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거두었다. 반면에 포데모스는 가장 의미있는 승리 지역이 주변부인 카탈로니아 지역이었고 발렌시아, 발레아리아 제도와 나바라를 포함한 바스크 지방, 갈리시아와 카나리아 제도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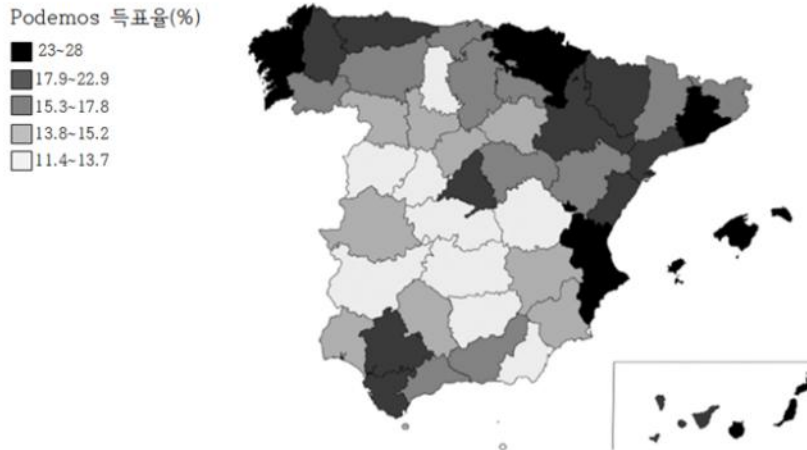
<그림 5> 2019년 스페인 총선에서 Vox 선거 결과



자료 : 스페인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Españ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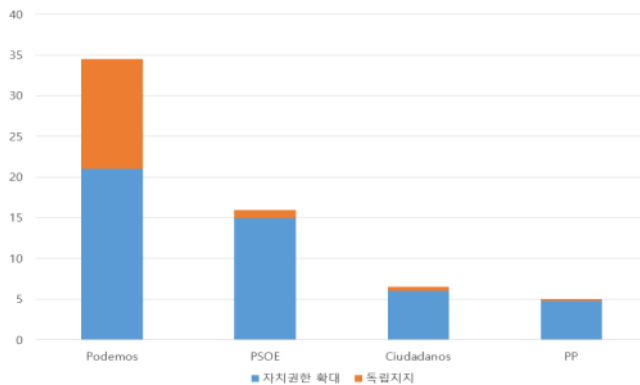
한편 2015년 총선에 대한 CIS 조사에 의하면 자치 권한 확대와 독립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3이 포데모스에 투표했다. 이 그룹에서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약하게 나타났다. <그림 7>의 그래프는 스페인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의 출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중앙-지방 균열과 영토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6> 2015년 스페인 총선에서 Podemos 선거 결과



자료 : 스페인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España)

<그림 7> 지역자치권한 확대/독립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지지 정당 득표율% (2015년)



자료 : CIS

한편 <표 8>의 데이터는 2015년과 2019년 CIS 총선 조사 결과를 통해 포데모스가 지역주의 정당 유권자들의 20%~24.5%로 차선의 투표 정당이었음을 보여준다. 2019년 Vox의 경우 이 그룹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 두번째 컬럼은 2015년 총선에서 강한 지역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들로부터 포데모스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임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2019년 감소하는 데 그림에도 Vox의 0.7%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대신 고려한다면 Vox와 포데모스의 차이는 더 좁혀진다. 세 번째 컬럼에서 보여지듯이 포데모스는 노동자 계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이 사회경제적 약자로부터의 지지에 호소한다는 측면에서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한편 이 경우 Vox와의 득표 차는 더 적어진다는 데 주목해야한다. 다시 말해 Vox와 포데모스는 사회 경제적 이슈에서 보다 영토 정체성 이슈에 있어 더 명확히 상반된 유권자 선택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유권자 집단 별 스페인 정당 지지율 (2015, 2019)

	지역주의 정당 유권자들의 잠재적 지원(%)		강한 지역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들의 지지(%)		노동자 계층 유권자 지지(%)	
	2015	2019	2015	2019	2015	2019
Podemos	24.5	20	26.5	17.5	27.6	17.9
Vox		0.5		0.7		9.1
PSOE	9.1	14.2	14.2	20.2	24.3	37.7
PP	2.2	2.9	8.6	4.9	17.4	7.2
Cs	9.1	4.9	4.4	3.8	15.8	15.9

자료 : CIS

VI. 결론

2018년까지 스페인에서 포퓰리스트 극우정당의 출현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Vox의 성장은 스페인 정치체계의 변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현재 스페인에서 좌파와 우파 포퓰리즘 정치가 함께 목도되며 이는 스페인 정당체계의

파편성을 대변한다. 이 연구는 스페인에서 포퓰리스트 극우 정당의 출현에 있어 영토적 동원이 큰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다. 실제로 중앙-지방 균열에 있어 좌우 포퓰리스트 양 정당의 시각이 가장 큰 차별화 요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스페인의 극우 포퓰리즘은 반지역적이고 반지방적인 구호로 지지를 동원했고 이는 스페인 지역 별 지지도 분포를 통해 확인가능했다. 반면에 좌파 포퓰리즘은 지방자치와 독립을 지지하는 지역들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극우정당의 출현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토적 영역을 다루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스페인 사례는 차별성을 갖는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정당들의 이념적 위치가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내어주거나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정치제도적 요인과 이민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변화를 스페인의 포퓰리스트 극우 정당 출현의 기회 요인으로 보았다. 거대 정당 간의 이념적 수렴은 극우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게 된다. 시민들은 주류 정당 간 경쟁에 따른 정치 이념의 중도적 수렴으로 정치적 대안의 부족을 느끼고 이로 인해 극우정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주류 우파정당인 국민당의 지지자들은 중도 우파 정당인 시민당의 출현으로 국민당이 정권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Vox로의 지지로 돌아섰다.

결국 Vox는 중앙-지방 균열 사이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반지역주의와 반이민, 반엘리트 정서를 동원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고상두, 기주옥. 2013. “극우정당 출현의 제약요인 분석: 스페인 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7(1), 185-203
- 고주현. 2018a.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분리독립과 인정의 정치.” 『유럽연구』 36(3), 75-110.
- 고주현. 2018b. “민주화 이행기 스페인의 정치균열과 갈등구조의 변화.” 『비교민주주의연구』 14(1), 1-27.
- 김현준, 서정민. 2015. “중동부 유럽의 극우주의 정당 등장 요인 연구: 헝가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7(3), 4-28.
- _____. 2017. “포퓰리즘 정치 개념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51(4), 49-74.
- 배병인. 2019. “기성 정당의 카르텔화와 포퓰리즘 정당의 성장: 유럽의 사례.” 『21세기정치학회보』 29(4), 73-90.
- 이규영, 김경미. 2012.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극우주의의 발흥과 극우정당의 발전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30(1), 43-71.
- 샤츠슈나이더, E. E.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현재호, 박수형 역. 서울: 후마니타스.
- 정병기. 2020. “포퓰리즘의 개념과 유형 및 역사적 변화 : 고전 포퓰리즘에서 포스트 포퓰리즘까지.” 『한국정치학회보』 54(1), 91 - 110.
- _____. 2012. “서유럽 포퓰리즘의 성격과 특징: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의 네오포퓰리즘 정당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2), 139-164.
- _____. 2018. “민주화 이후 그리스의 균열 구조 변화와 포퓰리즘 균열.” 『지중해지역연구』 20(4), 51-73.
- 홍태영. 2018. “주권자(sovverign)의 귀환과 민주주의적 정치?: 포퓰리즘과 근대정치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아세아연구』 61(2), 43-75.
- Abedi, A. 2002. “Challenges to Established Parties: the Effects of Party System Features on the Electoral Fortunes of Anti Political-establishment

- Part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4): 551–583.
- Alonso, S. and C. Rovira Kaltwasser. 2015. “Spain: No Country for the Populist Radical Right?”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20(1): 21–45.
- Art, D. 2008. “The Organizational Origins of the Contemporary Radical Right: The Case of Belgium.” *Comparative Politics* 40 (4): 421–440.
- Bosch, A. and D. M. Iván. 2017. “How Does Economic Crisis Impel Emerging Parties on the Road to Elections? The Case of the Spanish Podemos and Ciudadanos.” *Party Politics*, 1–11.
- Calzada, I. 2018. “Metropolitanising Small European Stateless City–regionalised Nations.” *Space and Polity* 22(3): 342–361.
- Chislett, W. 2018. *Spain No Longer Bucks the Trend on Far-Right Parties*. Madrid: Elcano Report.
- Dennison, J., and M. Mendes. 2019. “When Do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Succeed? Salience, Stigma, and the Case of the End of Iberian ‘Exceptionalism’.” *EUI Working Paper RSCAS*, 2019/26, Migration Policy Centre, Fiesole.
- Dowling, A. 2017. *The Rise of Catalan Independence: Spain’s Territorial Crisis*. London: Routledge.
- Encarnación, O. G. 2004. “The Politics of Immigration: Why Spain is different.” *Mediterranean Quarterly* 15(4): 167–185.
- Franquesa, J. 2019. “The Vanishing Exception: Republican and Reactionary Specters of Populism in Rural Spain.”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6(3): 537–560.
- Ferreira, C. 2019. “Vox Como Representante de la Derecha Radical en España: Un Estudio Sobre Su Ideología.” *Revista Española de Ciencia Política*. 51: 73–98.
- Ford, R., and M. Goodwin. 2012. “Strategic Eurosceptics and Polite Xenophobes: Support for the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 in the 2009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European Journal*

- of Political Research* 51(2): 204-234.
- Golder, M. 2016. "Far Right Parties in Europ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9: 477-497.
- Halla, M., A. W. Wagner, and J. Zweimüller. 2017. "Immigration and Voting for the Far Righ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5(6): 1341-1385.
- Ivaldi, G., M. E. Lanzone, and D. Woods. 2017. "Varieties of Populism across a Left-Right Spectrum: The Case of the Front National, the Northern League, Podemos and Five Star Movement."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3(4): 354-376.
- Jaboïs M. 2018. *La Nueva Extrema Derecha Irrumpe en Escena*. El País, the 4th of October. Available at:
https://elpais.com/politica/2018/10/03/actualidad/1538585644_517997.html
- Katz, R. S. and P. Mair. 1995.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1(1): 5-31.
- Katz, R. S. and P. Mair. 2018. *Democracy and the Carte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eley, G. 2018. How Spain Became the New Centre of Europe's Migrant Crisis. The Times, the 3rd of August.
 Available at:
<https://www.thetimes.co.uk/article/how-spain-became-the-newcentre-of-europe-s-migrant-crisis-wfdsq9s65> (accessed 5 April 2020).
- Knigge, P. 1998. "The Ecological Correlates of Right-wing Extremism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4(2): 249-279
- Kriesi, H., E. Grande, R. Lachati, M. Dolezal, S. Bornschie, and T. Frey. 2006. "Global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Political Space: Six European Countries Compared."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5(6): 921-956.

- Lipset, S. M. and S.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 Llaneras K, G. J and Andriano B. 2018. *Vox Crece Dónde Hay Más Inmigrantes: Un mapa de Sus Votos en Cada Municipio*. El País, 3 December. Available at: https://elpais.com/politica/2018/12/03/actualidad/1543829876_200181.html (accessed 5 April 2020)
- Lubbers, M., and P. Scheepers. 2002. "French Front National Voting: A Micro and Macro Perspective." *Ethnic and Racial Studies* 25(1): 120-149.
- Mair, P. 2002. "Populist Democracy vs Party Democracy." Yves Mény and Yves Surel(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New York: Palgrave, 81-98.
- Margulies, B. 2018. "Rajoy Loses Power in Spain: What Happens Now?" LSE European Politics and Policy (EUROPP) Blog. Blog Entry. <http://eprints.lse.ac.uk/90923/> (accessed 5 April 2020)
- Martín-Arroyo J. 2018. *Díaz Convoca Elecciones para Evitar el Desgaste del PSOE y la Inestabilidad*. El País, 9 October. Available at: https://elpais.com/politica/2018/10/08/actualidad/1538995646_481936.html (accessed 5 April 2020)
- Minkenberg, M. 2002. "The Radical Right in Postsocialist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ative Observations and Interpretation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16: 335-362.
- Morales L, S. and Ros V. 2015. "Issue Emergence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around Immigration in Spain." *Acta Política* 50(4): 461-485.
- Mounk, Y. 2018. "The Undemocratic Dilemma." *Journal of Democracy* 29(2): 98-112.

- Mudde C. 2004. "The populist zeitgeist." *Government & Opposition* 39(4): 541-563.
- Mudde C.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dde, C. 2010. "The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West European Politics* 33(6): 1167-1186.
- Mudde, C. 2011.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What, Who, Why?" *Participation* 34(3): 11-15.
- Mudde, C. & C. Rovira Kaltwasser. 2013. "Exclusionary vs. Inclusionary Populism: Comparing Contemporary Europe and Latin America." *Government and Opposition* 48(2): 147-174.
- Norris P. 2005. *Radical Right. Voters and Parties in the Electoral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yero López, L. 2015.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in Catalonia: Past, Present and Future." *Liverpool Law Review* 36(3): 237-256. "Queremos, Sabemos, Podemos."
- Podemos Manifesto. 2015. <https://servicios.lasprovincias.es/documentos/Programa-electoral-Podemos-20D-2015>
- Rodrick, D. 2018. "Populism and the Economic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1(2): 12-33.
- Rodríguez-Teruel, J., A. Barrio, and O. Barberà. 2016. "Fast and Furious: Podemos' Quest for Power in Multi-level Spain."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21(4): 561-585.
- Sanmartín O. R. 2018. Sánchez Dice que es "Exagerado" Hablar de Crisis Migratoria y el PP le Pide Expulsar a Más 'Sin Papeles'. El Mundo, 18 December. Available at: https://www.elmundo.es/espana/2018/12/18/5c18c00ffc6c83632_88b4577.html
- Sánchez-Cuenca I. 2018. Vox y Nacionalismo Español. InfoLibre, 5 December. Available at:

https://www.infolibre.es/noticias/opinion/columnas/2018/12/05/vox_nacionalismo_espanol_89529_1023.html

- Subirats, J. 2006. "Multi-level Governance and Multi-level Discontent: The Triumph and Tensions of the Spanish Model." in *Territory, Democracy and Justice*, edited by S. Greer, 175-200.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Taggart, Paul. 2004. "Populism and Representative Politics in Contemporary Europe."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9(3): 269-288.
- Turnbull-Dugarte, J. Stuart. 2019. "Explaining the end of Spanish exceptionalism and electoral support for Vox." *Research and Politics*, 6(2): 1-8.
- Vampa, D. 2020. "Competing forms of populism and territorial politics: the cases of Vox and Podemos in Spain."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1-18.
- Vidal, G., and I. Sánchez-Vitores. 2019. "Spain-Out with the Old: The Restructuring of Spanish Politics." in *European Party Politics in Times of Crisis*, edited by S. Hutter and H. Kriesi, 75-9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x Manifesto. 2019. "100 Medidas Para la España Viva." Available at: https://www.voxespana.es/biblioteca/espana/2018m/gal_c2d72e181103013447.pdf
- Wilson, A. 2012. "Multi-level Party Systems in Spain." *Regional and Federal Studies* 22(2): 123-139.

<기타 웹사이트>

안달루시아 지방의회 www.parlamentodeandalucia.es (검색일: 2020. 4. 15)

스페인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España

<https://www.generales2019.infoelecciones.es/> (검색일 2020. 4. 22)

스페인 사회조사센터(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CIS) 자료

스페인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 2,214(1996),

<http://www.cis.es/cis/opencms/ES/busqueda.html> (검색일 2020. 4. 20)

스페인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 2,817(2009),

<http://www.cis.es/cis/opencms/ES/busqueda.html> (검색일 2020. 4. 20)

안달루시아 지방 선거 후 조사 3,236(2018)

<http://www.cis.es/cis/opencms/ES/busqueda.html> (검색일 2020. 4. 20)

<Abstract>

Analysis on the Factors of the Support for the Populist Radical Right Party in Spain

Joohyun Go (Yonsei University)

In the 2018 Andalusian Spain election, the Populist Radical Right party VOX won 12 seats in the local parliament gaining 11% votes. For more than 40 years since democratization, Spain has been regarded as a barren land of PRR. However, the rise of VOX is considered to have ended the Spanish exceptionalism. This article analyzes the success factors of VOX and the factors that allowed the emergence of PRR parties in the Spanish political system. Through this, it is argued that concerns over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caused by the Catalan Separation and Independence Crisis are the main factors in the increase of the support for VOX. PRR parties in most parts of Europe have raised hostility toward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and the resulting affin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support factor for the far right parties. However, in the case of VOX, rather than immigration issues, it seems that the factors caused by the territorial(center-periphery) cleavages are greater. Spain's PRR mobilized support with anti-regional and anti-secessionism, which was confirmed by the distribution of support through Spain. This makes Spanish case as unique in that most studies on the rise of PRR in Europe have not covered the territorial issues.

Key words: Populism, Radical Right Party, Spanish PRR, Vox, Podemos

논문 접수일: 2020년 05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0년 06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0년 06월 20일